

##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한 이론수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중국 문학의 이해’ 교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

안병삼\*

### 〈차 례〉

1. 서론
2. 수업 진행
3. 강의평가와 사후 설문조사 결과
4.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교육 상황에,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통해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교수자가 새로운

---

\* 삼육대학교 항공관광외국어학부 조교수.

교수법을 활용한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이론수업에서의 수업 사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중국 문학의 이해’ 교과목은 2023년 1학기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공선택과목 수업이다. 본 논문은 ‘중국 문학의 이해’의 수업 사례를 수업 전 - 수업 중 - 수업 후 활동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무엇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본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만족도가 매우 좋았음을 객관식 강의평가와 주관식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객관식 강의평가 점수는 90.7점이었다. 주관식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진행에 처음에는 다소 부담감을 느꼈지만, 학습자들 간의 친밀도 향상을 통해 학습 부담감이 해소되고 그 결과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고 수업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학습자 중심 교수법, 수업 설계, 학습 만족도, 학업성취도

## 1. 서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급습으로 2020년 1학기 전면적으로 실시된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진행되어 많은 교수자 및 학습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 새로운 비대면 방식의 수업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였고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심지어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대면 교육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했던 학교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후 2022년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한풀 꺾이는 상황에서 다시 교육계는 대면 방식의 수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교육 현장은 표면적으로는 빠르게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면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이다. 강의 방식은 비대면 방식에서 대면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였지만, 곳곳에서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활용을 강조하게 되었고, 강의 구성에서도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방식에서 사용하던 각종 에듀테크, 가상 교실 등의 도구를 활용한 수업들이 많아졌다. 더 나아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챗 GPT의 강의실 등장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변화된 인식이다. 2020년 이후 비대면 수업만 듣던 코로나 세대의 학생들이 가상적인 공간에서의 수업에서 해방되어 학교로 나오게 되었고, 동시에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MZ세대인 2004년생 23학번이 대학에 입학하였다. 이 세대들은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로 묘사됐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장치 및 소셜 미디어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들과 친숙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 MZ세대이며, 이들은 코로나 시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이미 경험하였고, 동시에 어릴 적부터 다양한 시각적 교육 도구에 노출된 세대이다. 이에 코로나 이전에는 기존의 교재만을 가지고 일방적 설명만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방식의 강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게다가 과거 어떻게 가르치던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야만 했던 전공필수가 사라지고 교과목이 전공선택으로 대부분 바뀐 상황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폐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에듀테크 교육 도구를 사용하면서 유익하고 재미난 분위기의 수업을 찾아 수강신청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교육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는 기존의 일방적 교수자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내어 교수자마다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수법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 중심 수업(learner-centered instruction)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중심이 아닌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은 물론 학습만족도까지 높이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은 대체로 교사 위주의 일방적 강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학생들 간의 경쟁을 극복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수업,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 추구로 볼 수 있다.<sup>1)</sup> 학습자 중심 수업에 포함되는 수업전략들은 발견학습, 프로젝트학습, 체험학습, 토의토론 수업, 협력학습 등이 있다.<sup>2)</sup>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교수자-학습자 및 학습자-학습자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 중심 수업에서 특별히 학생들의

1) 일방적 교수 중심의 강의식 수업은 자기 주도적이고 유의미한 능동적 학습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다. 윤정은·김도연·권오남,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탐색-국내 수학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 2015, p.46 참조.

2) 송온유, 『혁신학교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18 참조.

수업에 대한 흥미와 욕구 등이 증시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는 교수자들이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통해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중국 문학이라는 이론 수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방식을 채택하여 토의토론 및 협력학습, 퀴즈 활동 등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학생과 교수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수업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대학 강의에서 공급자인 교수자와 수요자인 학습자 중에서 학습자가 변화하였다면 교수자도 외부환경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교수자들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인 다양한 교수법 강의 개설은 물론 방학 중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을 위한 수업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통해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교수자가 새로운 교수법을 활용한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이론수업에서의 수업 사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수업 진행

본 논문은 급격하게 변화한 교육환경 속에서 강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수자들이 강의실에서 시대에 부합하는 학습자 중심 활동 교수법 사례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어학 관련 학과에서 어학 위주의 커리큘럼을 대부분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활동 참여를 통한 이론수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교과목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의하였다.<sup>3)</sup> 첫째는 학생 활동 참여 중심의 수업 전개이다. 먼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지향하여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주고, 교사는 학습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sup>4)</sup> 동시에 수업은 교수자 혼자 만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학습자가 함께 좋은 강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인지하도록 하였다.<sup>5)</sup>

교수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실 수업 전 교수자가 완벽한 수업 진행을 위해 많은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6)</sup> 본 수업에서도 서로 모르는 학생들의 친밀도

3) 대학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주도하는 학습자의 능동성과 주도성, 그리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인 교수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김영식·김진선·장미소, 「대학생들의 학습자 중심 수업 참여 효과성 분석」, 『지방교육경영』 24(3), 2021, p.51.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고 교수자가 조력자가 된다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교사의 역할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의식이나 지시적 수업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진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학생 질문’의 활용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2016, p.224 참조.

5)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구성주의 학습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습이론은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를 중시하고,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김복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상·하위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언어연구』 24(2), 2007, p.3 참조.

6)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자신들의 이해 부족, 새로운 방식 접목을 위한 열정의 부족을 꼽았다. 강인애·주현재,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현직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2009, p.1 참조.

향상을 위해 첫 수업부터 진실게임을 준비하고, 수업하면서 지속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자주 발표하도록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이외에도 토의토론 및 찬반 토론 시간을 갖고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주제를 미리 준비하였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퀴즈도 준비하였다. 다음으로, 친밀도 향상이다. 강의실에서의 학생-학생 간 및 교수-학생 간 친밀도는 학습 분위기를 좌우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발언 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sup>7)</sup> 이러한 구성원간의 친밀도 향상을 통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만드는 것은 토의토론을 추구하는 강의에서는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친밀도 향상을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조별 활동, 짝 활동, 오락 게임 등의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적극적 참여의 독려이다. 학생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어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춘 학생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는 등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교수자의 학생들에 대한 정성은 이론 중심의 수업에서 생동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업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통해 즐거운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어 교수 및 학생들이 매주 기다려지는 강의를 만들 수 있고, 학습자 중심의 전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수업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아닌 탐색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며 학습 부담감을 줄여줄

7) 수업에 관한 성찰일지와 강의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구성원간 친밀도 향상을 통해 서로 모르던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바뀌면서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고 수업 중 말하는 것이 아주 편해졌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 자신의 가치관 형성 및 확립을 도와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필자가 이론수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방안에 따라 교과목에 대한 개요 설명 및 학습자 분석 이후, 수업 전·수업 중·수업 후로 나누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줌으로써 변화를 시도하는 교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1) 교과목 개요와 학습자 분석

본 교과목은 2023년 1학기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중국 문학의 이해’라는 전공선택과목의 이론수업이다. 학습 목표는 중국 문학의 출발인 시경 초사부터 당나라 소설 전기까지 중국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별 서로 다른 문학의 등장 배경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 문학 작품의 세계와 작가들의 삶의 태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성적평가 방식은 출석 2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20%, 보고서 20%, 학습 태도 20%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본 수업이 지향하는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고 함께 수업을 만들어간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본 수업에서 교수-학생 간의 그라운드룰을 정하고<sup>9)</sup>, 학생들의 의견을 수업 전에 청취하여 수업에 반영하는 과정

8)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수들의 혁신적인 교수법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소통 강의로 진행하는 ‘MVP 혁신교수법 교과목’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제도를 신청하여 진행하였다.

9) 과제물을 지각 제출하지 않기, 결석 및 지각하지 않기, 다른 학생의 의견



을 거치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업의 진행 방식, 평가방식, 수업 구성 내용, 학생 참여 활동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학생들도 본 교과목을 진행하는 주체임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0)</sup>

첫 수업을 마치면서는 자체 작성한 ‘학습자 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 특성 분석 및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중국 문학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그리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수업 진행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학습자 분석을 위한 일반적 특성’에서는 수강생들의 기초 자료인 성별, 학년, 학과 등과 중국 문학과 비슷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본 수업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교과목을 듣는 인원은 모두 18명으로 남학생은 4명, 여학생은 14명이었고, 2학년 12명, 3학년 3명, 4학년 3명이었다. 학과 구성에서는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어학과 학생 5명, 컴퓨터 관련 학생 2명, 경영학과 1명이었다. 컴퓨터 관련 학생 2명 중 한 학생은 중국어학과에서 전과한 학생이고, 또 다른 학생은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전과하려고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수강생 중 본 교과목과 유사과목 수강 여부를 묻는 물음에는 중국어학과 학생들은 대부분은 이미 이전에 기초 전공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으나 항공관광외국어학부 등의 학생들은 이전에 들어본 유사과목이 없다고 답하였다. 본 수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학생이 ‘중국 문학이 좋고 궁금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학생이 ‘중국어학 이외의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문화와 정서를

을 비난하지 않기,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등이었다.

- 10)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한 사람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교수자인 교수의 노력과 더불어 학습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여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수업의 주체임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제대로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토의토론 수업이라서', '안병삼 교수님 수업이라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학습자 분석을 위한 일반적 특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은 경영학과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외국어학부에 개설된 중국 관련 수업과 연결고리가 있어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중국어학과 학생을 제외하면 이전에 중국 관련 이론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강신청을 한 이유에서도 나타났듯이 어학 위주의 수업에서 중국 관련 이론수업을 들은 바가 거의 없어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이 강했다.

둘째, '학습자의 중국 문학 이해도'에서는 학생이 알고 있는 중국 문학 지식은 무엇이고, 학생이 관심 있거나 알고 싶은 중국 문학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중국 문학에서 학생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 산문, 소설 등의 작품 한 가지를 적어보라고 하였고, 평상시 중국 문학사에 관한 관심 정도를 '①전혀 없다 ②없다 ③있다 ④매우 많다'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학생이 알고 있는 중국 문학 지식을 적어달라고 한 물음에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였다. 이를 통해 현재 어학 위주의 수업이 많아 문학 등 다른 수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는 기초적인 상식 수준으로 답변으로 이백, 두보, 노신, 당시, 송시, 논어 등을 안다고 대답하였다. 학생이 관심 있거나 알고 싶은 중국 문학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에는 '문학사의 전체 흐름을 알고 싶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삼국지, 초한지 등을 배우고 싶다든가 중국 문학의 시작을 알고 싶다든가 등의 응답이 있었다. 중국 문학에서 학생이 알고 있는 대표적 시, 산문, 소설 등의 작품 한 가지를 적어보라고 한 것에는 삼국지와 서유기를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초한지, 홍루몽, 시경,

아큐정전, 허삼관매혈기, 개구리 등을 답하였다. 평상시 중국 문학사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②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③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6명으로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①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명이었다.

‘학습자의 중국 문학 이해도’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비록 전공선택 과목이지만 중국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누구나가 많이 들어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지식만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 문학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sup>11)</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본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의 마음은 중국 문학사에 대해 알고는 싶고 궁금하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셋째, ‘학습자 요구 및 관심 질문지’에서는 ‘중국 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채택한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를 물었고, 본 수업을 통해 학생이 가장 배워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본 수업시간에 교수가 가장 신경 써서 가르쳐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와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하였다. 중국 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채택한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3명이 ‘적당하다’라고 응답하였고, 2명만이 ‘경험이 없어 모르겠다’

11) 필자는 처음에는 중국 문학에 관심이 크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좋을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수업 방식과 수업 내용 등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업 방식은 선행학습(학생들이 미리 주교재를 읽어오고 수업 시작 전 퀴즈를 푸는 방식)에서 복습학습(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퀴즈를 풀고 수업 후 주교재를 읽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수업 내용은 중국 문학 작품의 분석을 통한 이해에서 시대적 배경과 문학의 특징을 연결해 설명하여 중국 문학의 큰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라고 하였다. ‘적당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명이었다.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대부분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이외에도 학우들과 같이 이야기해본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문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학습자 중심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우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본 수업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묻는 대답으로는 ‘중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싶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는 중국 문학사의 큰 흐름과 유명 작품들의 내용과 전반적인 중국 문학 지식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본 수업시간에 교수가 가장 신경 써서 가르쳐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한 교수법을 활용할 것과 쉽게 가르쳐달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한 질문에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달라는 요구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표시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야외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학습자 요구 및 관심 질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혹여나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sup>12)</sup> 또한, 단순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이해를 통한 지식 습득을 원하고 있었고 재미난 수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 사실 이러한 걱정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선행연구들은 학습자 중심 교수가 학습자의 학습 동기뿐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종백·김준엽·이성원,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학습 동기와 성장신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2(1), 2018, p.198 참조.

## 2) 수업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

교수자가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호성을 띠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교수자는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3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중국 문학의 이해’ 수업에서는 수업 전 - 수업 중 - 수업 후 활동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고,<sup>13)</sup> 교수-학생 간 또는 학생-학생 간 친밀도 향상 및 소통이 원활하도록 시간을 배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였다.

[표-1] ‘중국 문학의 이해’ 수업 단계와 교수·학습 활동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전 활동 (Pre-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lass에 수업 전 동영상 탑재: 수업 설명과 과제 제시</li> <li>- e-class에 수업 전 강의자료(PPT) 탑재</li> <li>- 학생 과제 결과물(보고서, 성찰일지) 접수 및 평가</li> <li>- 교수자 준비: 강의 PPT, 퀴즈엔, 평가지,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 준비 등</li> </ul>
수업 중 활동 (In-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자의 부가 설명 및 총평</li> <li>- 문학 작품에 대한 시대적 배경 분석</li> <li>- 에듀테크 활용(퀴즈엔) 활동</li> <li>- 아이스브레이킹(친밀도 향상 오락 게임, 야외수업) 활동</li> <li>- 배운 내용 평가하기: 평가 활동</li> <li>- 토의토론 활동(팀별 활동, 개별 활동)</li> </ul>

13) 단계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과정을 없애고 명확하게 각 주차별 단계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 전-수업-수업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후 활동 (Post class)	- 창의적 사고 활동(거꾸로 바라본 중국 문학사):개인 의견 발표
	- 학생들의 과제물 및 성찰일지 작성 및 제출
	- 학생 상담을 통한 의견 청취

이외에도 수업 전 - 수업 - 수업 후 단계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교수자는 매주 수업 진행 내용을 대상으로 단계별 수업의 구성을 미리 계획한 수업지도안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어 동참을 유도하면서 수업이 최대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2] ‘중국 문학의 이해’ 수업의 흐름도

제목		중국 문학의 이해	학년	2학년
학습 목표		시경 초사부터 당나라 소설 전기까지 중국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별 서로 다른 문학의 등장 배경과 그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문학 작품의 세계와 작가들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		
수업방법		학습자 활동 중심 교수법	시간	3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비고
수업 전	수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클래스에 동영상 탑재 및 통지 사항 고지</li> <li>▶ 이클래스에 수업 자료 탑재</li> <li>▶ 과제 결과물(보고서, 성찰일지) 접수 및 평가</li> <li>▶ 교수자 준비: 강의 PPT, 퀴즈엔, 평가지,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 준비 등</li> </ul>		발표문 양식 제공
수업 중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의 시대적 배경 묘사</li> <li>▶ 문학 작품의 시대적 배경 느낌 말하기</li> <li>▶ 문학 작품 속 핵심 포인트 추측하기</li> </ul>		
	학습 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확인하기</li> </ul> <p>중국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별 서로 다른 문학의 등장 배경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 문학 작품의 세계와 작가들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p>		

	전 개	강의와 토의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시대적 배경 이해와 작품 분석</li> <li>▶ 교수자의 강의자료 설명</li> <li>▶ 강의 내용 핵심 포인트에 따른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의·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 활동: 거꾸로 바라본 중국 문학의 내용</li> <li>- 에듀테크 활용(퀴즈엔) 활동: 강의 내용 풀고 시상하기</li> <li>- 생각하기 : 찬반 토론 및 창의적 사고 토의토론 활동</li> </ul> </li> <li>▶ 아이스브레이킹: 친밀도 향상을 위한 게임 활동</li> </ul>	야외 수업 1회
		마 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자의 학생 토의토론에 대한 총평 (장단점)</li> <li>▶ 교수자의 강의 내용 부가 설명 및 총평</li> <li>▶ 다음 주 강의 내용 공지</li> </ul>	
	수업 후	사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성찰일지 작성</li> <li>- 학습 상담</li> </ul>	상담 일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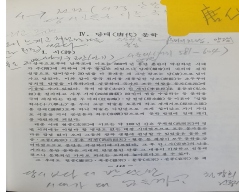

#### (1) 수업 전 활동(Pre-class)

수업 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이번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 설계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가장 먼저 수업 전 동영상 촬영하여 학교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하였다. 저자의 학교에는 이클래스(E-Class)가 운용 중인데 강의계획서는 물론 동영상 강의, 공지사항, 질의응답, 강의자료,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게 글을 쓰거나 강의자료를 올릴 수 있고 학생들과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다. 수업 전 동영상은 5분 이내의 동영상을 통하여 문학 작품의 해석이 아닌 문학의 흐름 이해라는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해당 주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의 흐름을 설명하고 수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여 스스로 수업 준비를 하고, 강의실에서 진행될 토의토론 및 학생 참여 활동 등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이클래스에 강의자료(PPT)를 탑재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습 상담을 통해 건의사항 제안한 것이다. 처음에는 강의자료를 주지 않고 강의를 하였더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강의자료를 한 페이지씩 사진을 찍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학생 상담 후 학생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의자료에 올려주었다. 이후 수업시간에 사진을 찍는 학생은 없어졌다. 다만 강의자료에 올린 자료는 필수내용을 적은 것으로 하였고 부가적인 설명이 담긴 수업용을 다시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진행할 에듀테크로 활용할 퀴즈엔에서 문제를 작성하고, 수업 전후의 평가문제를 출제하고,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성찰일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수업 전에 실시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성찰일지에는 한 주의 강의를 통해 학생 스스로 느낀 생각과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적게 하여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생각을 탐색하고자 하였고, 수업 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어떤 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 자신에 대해 자아 평가로 수업을 받는 자신에 대한 칭찬과 반성을 적게 하여 항상 수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림-1] ‘중국 문학의 이해’ 수업 전 활동

 <p>수업 전 동영상</p>	 <p>수업 PPT 준비</p>
 <p>강의 교재 분석</p>	 <p>강의자료 탑재</p>

## (2) 수업 중 활동(In-class)

수업의 출발은 학생들과 밝게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친밀도 향상이 학습 분위기를 좋게 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sup>14)</sup> 전공이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도 친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다른 학과 학생들이 있으면 더욱 더 친밀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본 교과목의 경우 타 학과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어 모든 학생의 친밀도 향상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였다. 수업 중 활동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

14) 학생들의 수업 중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학습자의 흥미, 교수자의 칭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습자의 사고를 존중하는 교수자의 태도와 강의실 분위기이다. 김진호, 『학습자 중심 수업과 학생들의 수업에의 몰입에 관한 소고』, 『수학교육 논문집』 22(1), 2008, p.41 참조.

에게 강조한 일은 이번 주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주는 일이었다. 이 수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알려주어 모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업 중 활동은 도입-전개-정리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도입 부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오늘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배우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다. 이것은 수업 전 동영상에 통해 주교재를 읽고 오라는 과제를 학생들이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체크를 하는 과정이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스스로 예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과제 수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문제 풀기 활동은 수업을 마치는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실시하여 배우기 전과 배운 후의 답변 상황을 비교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배운 뒤의 답변을 통해 배움의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해당 주 수업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지목하여 학생들의 최소한 학습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는 문학적 장르가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시대적 배경을 통해 설명해주었다. 도입 단계는 큰 틀에서의 시대를 보게 하고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학습 목표를 ‘중국 문학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작가들의 삶을 반추(反芻)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태도를 고민하면서 지혜 얻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전개 부분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많은 활동을 학생과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본격적인 문학을 설명하기 전 학생들에게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여 문학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도

록 하였고 PPT 강의자료를 통해 간략 핵심 내용과 자세한 설명 내용을 준비하여 보여주었다. 학생 상담을 통해 안 사실 한 가지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학 자체보다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문학을 다루기 전에 해당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추가하였고 학생들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중국어 회화 위주의 수업을 들어서 중국 역사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이것은 중국 이론수업이 대학 교과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학생 중심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하였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듣고 문학 작품 내용과 작가의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말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퀴즈 풀기 활동 속에 오답 체크를 하면서 재미나게 웃을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배우기 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문제 풀기 활동을 통해 강의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학생 개인의 창의적 사고 활동을 위한 ‘거꾸로 바라본 중국 문학사’라는 시간을 만들어 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한마디라도 반드시 말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끝까지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교재의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눈으로 중국 문학을 바라보게 하였고 교과서에 서술한 내용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도록 하였다.<sup>15)</sup> 예를 들어, 위진남북조시대 죽림칠현의 삶에 대해 옆에

15) 필자는 인문학의 창조적 사고를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서 ‘교과서의 경전화’를 깨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중심주의 수업은 교과서의 위상을 경전과 같이 대하고, 그 내용을 교사의 설명이나 시범에 의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며, 그 결과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이다. 이를 교과서의 경전화(經典化)라고 한다. 이진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학생 질문’의 활용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서 땀 흘리며 노동을 하는 농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등을 하였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찬반으로 나누어 서로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찬반 토론 활동을 통해 서로 반박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였다. 또한, 찬반이 아닌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한 주제를 정한 후 학생들이 자신의 인문학적 사고를 무제한 발휘하는 시간도 가졌다.<sup>16)</sup>

강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강의자료를 이클래스에 미리 공개하여 학생들이 다운로드받아 스스로 학습하게 하였고, 강의 시간에는 학생들의 긴장감 유지를 위해 돌발 질문을 실시하였다. 수업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학습자 간 친밀도 향상은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개인 및 단체 게임 활동을 하거나 야외에서 수업하면서 조별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교수자-학습자 간 신뢰도가 향상되었고, 학생들은 수업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발언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sup>17)</sup>

---

연구』 16(4), 2016, pp.227-228 참조.

- 16) 토의·토론 활동은 교수자의 수업 준비의 미비, 전공 관련 토의·토론 활동의 부족, 교수자의 경험 및 노하우의 부족 등과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능력 부족, 자료 탐색 능력 미달, 합의도출 능력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나, 토의토론 활동에 대한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첫째, 고차적 사고력 신장을 들 수 있다. 둘째,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학습 태도 면에서 적극적, 자발적 학습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김은주,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을 위한 토의·토론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실태」, 『교육연구논총』 39(2), 2018, pp.82-84 참조.
- 17) 필자가 실시한 학습자 중심 교수법은 학생의 질문을 억압하는 교과서 중심주의 수업의 '교과서 경전화'를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경전과 같은 위상을 지닐 때 학생의 지식 형성을 위한 질문은 억압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집중도가 낮아지거나 여름의 더위로 조는 학생이 있는 경우 등에는 더욱 효과가 있었다.

정리 부분은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교수자는 강의에 대한 총정리 및 핵심 요약을 다시 학생들에게 상기시켜주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가능한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하였고, 학생의 질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이 이해가 될 때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었다.<sup>18)</sup> 또한, 학생들의 찬반 토론과 토의토론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학생들이 놓친 부분을 다시 짚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였다. 이에 작품과 본 교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주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기를 요청하면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 내용을 공지하면서 수업을 마쳤다.

본 수업을 진행함에 교수자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수업의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친밀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의 게임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친밀도와 분위기를 기반으로 긴장하지 않고 서로 발언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

18) 교수자는 학생의 질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보다 질문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교사는 학생의 질문을 통해 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생의 질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진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학생 질문’의 활용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2016, pp.223 참조.

[그림-2] ‘중국 문학의 이해’ 수업 중 활동

<p>[당시(현재)의] 거꾸로 생각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했다?</li> <li>2.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li>3.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li>4.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li>5.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li>6.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li>7.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li>8.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li>9.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li>10.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 (당나라 시대가 꽃과 새를 노래한 것은 왜일까?)</li> </ol>			
창의적 사고 활동	퀴즈엔 풀기 활동	토의토론 활동	단체 게임 활동
	<p>『시(詩)의 이해』, 『조시(趙詩)의 이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2.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3.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4.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5.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6.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7.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8.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9.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li>10. 시(詩)의 이해 (시(詩)의 이해)</li> </ol>		
학생 발표 활동	수업 전후 평가 활동	야외 단체 활동	조별 활동

## (3) 수업 후 활동(Post class)

수업 후 활동에는 학생들의 성찰일지 작성과 학습 상담 등이 있다. 성찰일지는 매번 다른 문항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하였고, 배움 일지의 성격과 자아 성찰의 성격 모두를 넣었다. 배움일지의 내용에는 매주 수업의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수업 내용이라든가 배운 내용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항목을 넣었다. 자아 성찰의 내용에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등으로 나눠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습 상담은 교수자가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하여 특별히 학생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기회로 매우 중시한 부분이다. 본 교과목을 진행하면서 모든 학습자 18명에 대해 최소한 1번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형식으로는 조별 상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면서 솔직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

하였다. 상담 시간은 수업 이후에 가장 많이 하였지만, 수업 전과 수업 중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본 교과목이 학습자 중심 교수법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며,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하였고<sup>19)</sup>, 학습 상담을 통해 본 교과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학습 상담에 대한 피드백은 학습 상담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다음 강의부터 적용하여 그 변화를 학생들이 체감하도록 하였다. 혹 있을지 모를 반대의견을 가진 학생을 위하여 학생 상담에서 도출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유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까지 파악 후 최종 결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학습 상담을 통해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려고 하였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같이 만들어서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주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본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학습 집중도도 높아졌다. 간혹 학생들의 과제물이 있으면 학생들의 과제물에 피드백을 달아 다시 돌려주는 작업도 실시하여 학생들이 항상 교수자와 소통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sup>20)</sup> 아래

19) 학습자 중심 교육의 특징은 수동적인 학습보다 활동에 중점, 깊이 있는 학습과 이해를 강조, 학습자의 증가된 책임과 책무, 학습자에게 부여된 자율성,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의존성,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존중, 교수와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적 접근 등 7가지이다. 강인애·주현재,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현직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2009, p.5 참조.

20)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교수자의 학습자와 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관심과 피드백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학습자의 성공적인 과제해결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움이 주로 피드백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피드백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가속화시킨다. 또한, 피드백은 교수자와 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자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게 하는

내용은 학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에 대한 반영 내용이다. 첫째, 학습 분위기가 좋아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으니 모든 학생이 친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자 간 친밀도 향상을 통해 서로 다른 학과 학생들끼리 조별 활동을 하게 하였고, 수업 시작 전 서로 인사하기를 실시하였고, 수업 중 진실게임 등 수시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하였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자 야외수업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여 실시하자고 제안하여 1회 야외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학생 스스로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하였고, 교수자는 야외에서 당시 진행하던 위진남북조시대의 작가 사상을 설명하고 학생들과 토의토론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가져 이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 모두 교수-학생 간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둘째, 문학의 이해를 위해 중국 역사적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각 시대의 문학과 시대적 배경 및 당시 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강의 시간을 따로 가졌다. 특히 표를 만들어 서로 역사와 문학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셋째, 수업 전 동영상 너무 길어 부담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래 수업 전 동영상이 5분 정도 촬영을 하였지만, 학생들은 더 짧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5분을 넘기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되도록 일찍 탑재해주기를 위하여 수업 며칠 전에 탑재하였다. 이외에도 성찰일지 작성 횟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 같은 시기의 문학 수업에 대한 성찰일지는 받지 않았다.

---

데 기여한다. 김누리·장선영,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에 대한 자기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30(4), 2018, p.516 참조.



[그림-3] ‘중국 문학의 이해’ 수업 후 활동

[illegible]

### 3. 강의평가와 사후 설문조사 결과

본 수업을 모두 마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한 강의평가와 필자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학습자 수업만족도 조사 및 총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8명 중에서 17명이 참여하였다. 객관식으로만 구성된 강의평가는 각종 학생의 능력 향상도를 묻는 내용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필자가 준비한 주관식만으로 구성된 ‘학습자 수업만족도 조사 및 총평’은 객관식 강의평가에 대한 보충으로 학생들의 의도를 자세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한 본 교과목에 대한 객관식 강의평가 점수는 90.7점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강의 진행 부분은 91.1점, 학생 자기평가 부분은 90.3점, 수업계획 부분은 89.1점, 수업방법 부분

은 91.5점, 학생 평가 부분은 90.6점, 강의만족도는 91.5점 등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는 학생들이 자기평가 부분에서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수업 관련해서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 이상이어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강의만족도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 항목에서 대표적인 질문을 살펴보면, 학생 자기 평가 부분에서 ‘나는 이 과목의 모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라는 질문에 9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7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1명이었다. 수업계획 부분에서 ‘수업계획서에 강의의 목표, 내용, 성적평가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라는 질문에 7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10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부분이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부분으로 향후 강의계획서를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의 진행 부분에서 ‘교수님은 강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였다’라는 질문에 10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6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못하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1명이었다. 수업방법 부분에서 ‘교수님은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라는 질문에 14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3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저자가 본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면서 진행한 부분이 학생들과의 소통이었다. 수시로 상담을 하였고 성찰일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생 평가 부분에서 ‘시험은 수업시간에 다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라는 질문에 11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5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1명이었다. 수업만족도 부분에서 '이 강좌를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다'라는 질문에 13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3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1명이었다.

다음으로, 본 교과목에 대한 주관식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진행에 처음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학습자 간의 친밀도 향상을 통한 학습 부담감 해소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느낀다고 하면서 수업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sup>21)</sup> 특히, 이론적인 지식 학습이 주 내용인 중국 문학에 대한 강의를 문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관과 연계한 학습자 활동 중심 학습 내용의 효과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의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성적 성격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교수자의 말에서 부담감을 느꼈다는 학생의 답변이 있어 교수자의 열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학습이탈 및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면, '수업 중 배운 내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중국 문학의 흐름, 당나라 문학, 사마천의 사기, 위진남북조 문학 등등이 기억난다고 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하나의 문학보다는 중국 문학의

21) 학습자 중심 교수는 상대적이지만 학습자의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신장시키며,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성장 믿음을 가지게 하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학습자에게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제공하며, 협력과 토론 학습을 통한 개방적인 학습 문화가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한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종백·김준엽·이성원,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학습 동기와 성장신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2(1), 2018, p.200 참조.

흐름을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 답변도 있었다. ‘수업시간에 진행한 토의토론 활동에 대한 의견은?’이란 질문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충분한 토의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 학생의 경우 미리 토의토론에 대해 준비를 하라고 하면 과제가 되고 발표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교과목에서는 대부분 창의적 사고를 위한 토의토론을 진행하면서 수업 내용을 배운 뒤 즉시 실시되는 토의토론이라서 더욱 좋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토의토론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학습 분위기가 즐거운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교수-학습자 간 소통을 통해 수업에 반영한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학생들의 수업 중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 자료를 올려준 것과 문학의 역사적 배경을 보강해달라는 요구에 자료를 준비해 강의한 것 등이 가장 많은 대답이었다. 이외에도 먼저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준 점<sup>22)</sup>, 다양한 방식의 수업 시도<sup>23)</sup> 등의 답변이 있었다. ‘본 수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장점으로는 내성적인 사람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점, 여러 활동을 통한 친밀도 향상 및 학습, 학우 간 친밀도 향상을 통한 토의토론, 사고의 전환 등 재미있는 수업 분위기, 대충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교수님의 열정, 문학과 역사를 동시에 배운 점, 삶의 지혜를 배운 점 등

22) 한 학생의 응답이다: “이번 수업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중에서 가장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이 활발했던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매번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셔서 수업시간에 부끄러움이 많은 저였지만 항상 웃으며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었고 다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만족한다.”

23) 한 학생의 응답이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큰 틀에서 다루다 보니 작품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않은 점,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학생은 수업이 힘든 점, 수업량이 많은 점, 뭔가 암기를 통한 학습이 없다는 점, 역사적 배경 및 기초 문학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마지막 질문에는 본 수업의 만족도를 묻는 대답이었는데 16명이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학교에서 실시한 객관식 강의평가와 필자가 준비한 주관식 ‘학습자 수업만족도 조사 및 총평’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본 교과목에서 실시한 다양한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 대체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교수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다양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 4. 결론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들은 자신들의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모든 대학은 교수학습단을 통해 교수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면서 기존의 일방적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 여러 가지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교수들은 이러한 외부적 교육 환경과 MZ세대인 학생들의 학습적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익숙한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

본 논문은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어떻게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생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참여 활동 수업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이론수업의 경우 어떠한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익하고 재미난 수업을 만들고 학생과 교수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수업 사례를 보여주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중국 문학의 이해’ 교과목은 2023년 1학기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공선택과목 수업이다. 본 논문은 ‘중국 문학의 이해’의 수업 사례를 수업 전 - 수업 중 - 수업 후 활동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무엇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수업 전 활동은 먼저 교수자가 수업 전 동영상을 촬영하여 학교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탑재하였다. 저자의 경우 강의계획서는 물론 동영상 강의, 공지사항, 질의응답, 강의자료, 과제 등으로 구성된 학교 이클래스(E-Class)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과도 수시로 소통하였다. 다음으로는 이클래스에 강의자료(PPT)를 탑재하였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진행할 에듀테크로 활용할 퀴즈엔에서 문제를 작성하고, 수업 전후의 평가문제를 출제하였고, 학생 참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성찰일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수업 전에 실시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수업 중 활동은 도입-전개-정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도입 부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오늘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배우기 전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다.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이번 주 수업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핵심 포인트라고 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지목하여 학생들이 최소한 학습량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는 문학적 장르가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시대적 배경을 통해 설명해주었다. 전개 부분은 학생들에게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여 문

학의 탄생 배경을 이해시켰고 PPT 강의자료를 통해 간략 핵심 내용과 자세한 설명 내용을 준비하여 보여주었다. 강의 후에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듣고 문학 작품 내용과 작가의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퀴즈 풀이 활동을 하면서 오답 체크를 통해 재미나게 웃을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배우기 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강의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창의적 사고 활동으로 ‘거꾸로 바라본 중국 문학사’라는 시간을 만들어 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말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찬반으로 나누어 서로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찬반 토론 활동을 하였다. 또한, 찬반이 아닌 토의토론의 주제를 정해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적 사고를 무제한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강의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학습자 간 친밀도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게임 활동을 하거나 야외 수업을 1회 진행하기도 하였다. 정리 부분은 교수자가 강의를 총 정리 및 핵심 요약을 다시 학생들에게 상기시켜주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찬반 토론과 토의토론 및 발표와 피드백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학생들이 놓친 부분을 다시 짚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작품과 본 교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주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기를 요청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수업 후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성찰일지를 작성하였고, 교수자가 학생들과 학습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본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매우 좋았음을 객관식 강의평가와 주관식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객관식 강의평가 점수는 90.7점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강의 진행 부분은

91.1점, 학생 자기평가 부분은 90.3점, 수업계획 부분은 89.1점, 수업방법 부분은 91.5점, 학생 평가 부분은 90.6점, 강의만족도는 91.5점 등이었다. 주관식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학생이 학생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진행에 처음에는 다소 부담감을 느꼈지만, 학습자 간의 친밀도 향상을 통해 학습 부담감이 해소되고 그 결과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고 수업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대학 교육은 대내외적인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야 하고, 학생들의 눈높이 교육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수자가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고민하는 것은 좀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본 논문이 많은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강인애 · 주현재, 「 '학습자 중심 교육' 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현직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을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2009, pp. 1-34.
- 김종백 · 김준엽 · 이성원, 「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학습동기와 성장신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교육심리연구』 32(1), 2018, pp. 183 - 205.
- 김진호, 「 학습자 중심 수업과 학생들의 수업에의 몰입에 관한 소고 », 『수학 교육 논문집』 22(1), 2008, pp. 41-52.
- 김은주, 「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을 위한 토의 · 토론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실태 », 『교육연구논총』 39(2), 2018, pp. 79-111.
- 김영식 · 김진선 · 장미소, 「 대학생들의 학습자 중심 수업 참여 효과성 분석 », 『지방교육경영』 24(3), 2021, pp. 51-71.
- 김누리 · 장선영, 「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에 대한 자기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교육방법연구』 30(4), 2018, pp. 511-535.



- 김복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상·하위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언어연구』 24(2), 2007, pp. 1-18
- 송운유, 『혁신학교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진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학생 질문' 의 활용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2016, pp. 223-242.
- 윤정은·김도연·권오남,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탐색-국내 수학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 2015, pp. 45-68.

(투고일: 2023. 11. 12 심사완료일: 2023. 12. 16 게재확정일: 2023. 12. 18)

안병삼  
소속: 삼육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전자우편: bayusansan@hanmail.net

[Abstract]

### Student participation activity-centered lesson design plan in Chinese literature class

An, Byung-Sam

This paper attempted to present a lesson design plan to provide university education appropriate to the times through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under rapidly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ducational situ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eaching case plans in theory classes in the hope that many instructors would create enjoyable classes using new teaching methods by showing various student participation activity programs.

The 'Understanding Chinese Literature' course used in this paper is a major elective course offered for second-yea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Aviation, Tourism and Foreign Language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3. This paper attempted to clearly show what the instructor and learners did in each step by dividing the class case of 'Understanding Chinese Literature' into activities before class, during class, and after class.

This class, which was conducted in this way, showed that students' learning satisfaction was very good through multiple-choice lecture evaluations and subjective surveys. The multiple-choice lecture evaluation score was 90.7 points. In a subjective survey, most students felt somewhat burdened at first while conducting classes using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but the learning burden was relieved through improved intimacy between learners, and as a result, academic achievement increased and class satisfaction was also high.

key words :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lesson design,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